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여자가 여자를 욕망하고,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반 검열 때문에 조금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손잡고 끌어안고 서로를 무릎에 앉히는 게 깊은 우정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케이와의 인터뷰

2010년 6월 1일
홍대 TOZ, 대한민국 서울

K: 저는 2003년도에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단체 이름이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였고, 2005년도에 이름을 바꿨어요. 주로 이메일, 면접, 전화 등으로 상담을 하고,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이랑 연대활동도 합니다. 지금도 무지개활동이라는 연대단체에서 내일 지방 선거를 준비하다 왔어요.

Carlos Motta: 끼리끼리 시절로 잠시 돌아가면, 이런 단체가 생길 수 있었던 배경이 뭔가요? 당시의 레즈비언 이슈들과 관련해서 끼리끼리가 한국 사회 내에서 취한 자리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K: 끼리끼리는 1993년도에 레즈비언 활동가들과 게이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초동회가 갈리면서 단체예요. 게이들은 친구사이를, 레즈비언들은 끼리끼리를 만들었죠.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활하고 관계하는 데에 있어서 당시 게이 활동가들이 단체의 여성 활동가들에게 말하자면 평등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 회의할 때 여성이 담배를 피우면, 보통 남자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네가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냐?”라고 한다든가.....

또 다른 이유는 게이 이슈와 레즈비언 이슈 간의 차이였어요. 당시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의 역병이라고 이야기됐는데, 이때 “동성애자”는 게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게이들에게는 에이즈가 게이들의 병이 아니더라도 알리는 작업,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에이즈를 예방하는 작업이 중요했죠. 즉 게이들의 섹슈얼리티는 이미 가시화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투쟁이 뒤따라야 하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레즈비언들의 섹슈얼리티는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는 단계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혼 레즈비언의 남편이 전화해서 “내 부인이 여자랑 바람이 났으니 참아준다, 남자였으면 못 참아주는데”라고 말할 정도로 레즈비언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CM: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땠나요?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레즈비언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요?

K: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남성에 비해 교육이나 노동의 기회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측면에서 여성에게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어요. 이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식으로 더 강화되었죠. 우선 모든 여성들에게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머니 역할, 즉 보살핌과 감정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죠. 결혼을 하면 “집에서 남편하고 있으면 되지 밖에 나가서 남자들—밖에 있는 사람은 남자뿐이라고 생각하죠—이랑 몸을 섞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들 자신이 필요하다면 어떤 여자든 자기와 섹스를 해야 한다고 여기고요. 즉 한편으로는 여성이 욕구가 없거나 없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봐요. 여성은 남성의 성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대상화된 거죠. 이런 인식 속에서 여자가 여자를 욕망하고,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이반 검열 때문에 조금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손잡고 끌어안고 서로를 무릎에 앉히는 게 깊은 우정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농담 중 하나가, 한국에서 제일 부자는 게이 커플이고, 그 다음이 헤tero 커플이고, 그 다음이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쉽게 빈곤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이 훨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게이 남성들은 자신의 사회지위를 매개로 가정도 꾸리고, 자기 섹슈얼리티도 따로 꾸려갈 수 있겠죠. 반면, 여성들은 현재 결혼제도의 일부가 되면 남자보다 자유로워지기가 훨씬 어려워요. 젠더와 계급,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CM: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은 한국의 여성주의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앞에 말씀하신 이슈들 속에서 여성주의가 취한 입장은 어땠나요? 두 번째 질문은, 여성주의와 레즈비어리즘 간의 관계에 관한 겁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죠.

K: 페미니즘 운동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선 위치를 먼저 말씀 드려야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소위 명문대에 속하는 사년제 대학에 2000년에 입학했고, 90년대 후반부터 매우 활발했던 여성주의 운동의 훌륭한 사례를 많이 목격했어요.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공간에서 여러 최신 담론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페미니스트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은 고졸노동자 여성, 장애 여성, 이주여성 등의 경험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지극히 부분적인, 저의 경험에서만 나온 페미니즘일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주류 페미니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비주류 페미니즘, 즉 레즈비언운동에 속하게 되었죠.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배우고 함께 성장했던 2000년도 초반의 페미니즘은 8-90년대의 연장선 상에 있었어요.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고, 성폭력이 정의되고, 가정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 나아가 성매매특별법까지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당시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사업을 주로 했죠. 한편 학교에서는 교수들의 성폭력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고, 그것이 지금 활동의 뿌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페미니즘운동에 투신하기 전에 학생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동권 내에서도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보적이라는 인사들이 동료들을 강간하고도 발뺌하는 일들도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일어났어요. 그래서 운동사회 내의 성폭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100인위원회가 결성되었죠. 그 속에서 저는 여성주의가 진보진영 안에서도 묻혀왔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활동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레즈비언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만 있고, 성폭력도 남자에게 당한 성폭력에만 국한되었죠. 이 구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닫게 되면서 학교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본격적으로 사귀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끼리끼리로 들어와서 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유급간사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2가지 사건 때문에 더 이런 주류 페미니즘 단체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로 윗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주축이 되어 자금을 모아 지원을 해주는 한국여성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끼리끼리가 프로젝트 공모에서 항상 떨어지지만 하는 거예요. 의아해 하던 중에 드디어 한 번 뽑혔죠. 하지만 그 지원금이, 끼리끼리가 “왜 우리는 안줘?”라고 반문하지 않도록 다른 단체들에게 주고 남은 돈을 모아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원금을 보이콧했고, 그 투쟁 덕분에 이후 단체들은 지원금을 잘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거예요. 저도 끼리끼리의 대표로 호주제폐지 공동행동 단체에 들어가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도에 대해 함께 논의했어요. 저는 개인별 등록만이 아니라 이성애주의가 드러나지 않고 한부모가족이 피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하지만 윗세대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호주제 폐지도 안 되고, 그러면 다 너네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나왔죠. 기가 막혔지만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8-90년대에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활동했던 페미니스트들이 이제는 저희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편협한 이성애중심주의자들로 다시 다가왔어요. 그 페미니즘은 지금의 퀴어 활동가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해결해야 하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CM: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주의자이자 레즈비언으로서 요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K: 일단 가시화가 가장 시급하죠. 사람들은 아직도 레즈비언이 뭔지도 모르고, 여자들끼리 대체 뭘 하느냐고 아직도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당신 앞에서 있는 내가 레즈비언이다”라고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텔레비전에는 못나가더라도 라디오로 목소리 커밍아웃을 한다거나, 실명을 감추더라도 글을 쓴다거나, 강의를 나가거나, 거리 캠페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레즈비언이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내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본 레즈비언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중파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게이 캐릭터가 그나마 많이 나와요. 물론 실제와 다르게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만 그려지고, 그에 따른 꺾그러운 효과도 있죠. 하지만 레즈비언에게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서 “와 좋긴 한데 우리는 언제 텔레비전에 나올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끼리끼리에 처음 갔을 때 있던 가족바지에 체인달고, 머리 짧고, 덩치도 남자만한 그런 아저씨 같은 레즈비언들, 나는 좋아하지만 사회에서는 비호감으로 통하는 그런 언니들이 언제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에 나올까라고. 모든 레즈비언들이 다 그런 건 아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깐 나와야 하잖아요.

CM: 이런 이슈들에 대해 취하는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K: 끼리끼리가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전환한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끼리끼리가 처음이자 유일한 레즈비언 단체였을 때는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심리학 전문가는 없었지만, 그냥 전화를 받아주거나 편지에 답장을 써주면서 “나도 레즈비언인데, 너도 참 힘들겠구나”라고 말해주는 데에서 시작했어요. 우리한테는 상담이 바로 현장인 거죠. 본격적으로 이름을 바꾼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있는 곳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도 상담채널을 더 확보하거나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체계화하는 것 같이 상담의 내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어요. 나아가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해서 정교한 분석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요. 외국의 유행담론을 한국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상황에 기반해서 문제의식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 내용의 경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십대 이반들이에요. 집이나 학교에서 이반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청소년 쉼터에서도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쉼터 선생님들 중 동성애가 옳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십대 이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높이를 맞춰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요즘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운동들과 성인 단체가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하죠.

또 다른 문제는 커밍아웃의 전략이에요. 아우팅에 대한 경각심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커밍아웃을 할 건가라는 문제죠. 일반 여성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공개하고 독립해 살기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아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로 혼자서 살아도 괜찮을 수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장치가 돼요. 이런 커밍아웃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CM: 이 모든 사회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어떤 법적 조치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끼리끼리에서 하는 법적 운동 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K: 단체 차원에서 확고하게 정한 입법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새로이 마련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가족구성권 문제예요. 동성 간 파트너십이나 다양한 공동체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어떤 것이 좋을지, 예를 들어 결혼합법화가 좋을지, 주거연대계약이 좋을지, 팩스(PACS) 같은 시민연대계약이 좋을지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원칙 하나는 우리 같은 동성커플만 보장받기를 요구하는 것은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의미가 없다는 점이에요. 헤테로 핵가족 바깥은 모든 것에 눈을 돌려 연대할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지난 2007년에 보수 기독교 세력의 입김 때문에 차별 사례 중 성적 지향이 누락되었죠. 올해 개정안에 이것이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든, 이명박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다지 실효성을 지니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한편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LGBTQ를 위한 분리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어요. 이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예요.

세 번째는 동성성폭력 문제인데, 여기에는 여러 이슈가 겹쳐요. 친구사이의 성폭력상담소와 연대해서 군대 내 성폭력에 관해 발언하고 있고, 동성애자인권연대와 군형법을 문제삼는 활동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저희가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니예요. 지금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여전히 “부녀”인데, 이미 그 자체가 성기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이죠. 가령 얼마 전에는 호적상으로는 남자여도 실질적으로는 포스트오프(post-op)로 살았던 MTF 트랜스젠더가 강간죄 객체로 처음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판결문에도 여전히 이런 관점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질이 있고, 남자랑 섹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간죄 객체로 인정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세우는 거죠. 주민등록 번호는 여전히 1번으로 시작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피해로부터 구제받았다는 점 등은 유의미하지만 판결문의 세부내용까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동성 간의 성폭력을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생물학적 남성들은 페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폭력을 상상할 수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 상상 자체를 못하죠. 여성 동성애자들조차도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해요.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해요.